■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5-51.
http://doi.org/10.17948/kcs.2019..84.35

【특집1: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2)】

가와이문고(河合文庫) 소장 古文書에 보이는 조선후기 서울 종로의 주택과 미나리 논(水芹田)

김문경(金文京)*

목 차

1.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의 傳記
2. 가와이문고의 고문서
3. 맺음말

1.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의 傳記

2019년 2월 21일 河合文庫 목록 출판을 기념하여 교토대학에서 〈한국고문헌의 세계〉 전시회와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이 전시의 도록을 준비하는 중에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이용지원과의 가지야마 노부코(梶山暢子) 여사로부터 가와이 히로타미의 맏형인 가와이 시타로(河合鉀太郎)[1]가 한문으

* 일본 츠루미대학(鶴見大學) 교수・교토대학(京都大學) 명예교수.

1) 가와이 시타로(1865-1931)는 가와이 히로타미의 맏형이다. 1890년 제국대학 농과대학(현재의 도쿄대학 농학부) 임학과를 졸업하였고, 1897년 도쿄제국대학 조교수 취임하였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유학을 거쳐 1903년 도쿄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 후 유학 시절에 알게 된 대만총독부 민정장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초청으로 대만으로 건너가 아리산(阿里山) 개발과 등산철도 건설에 진력했다. 아리산에는 가와이 시타로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琴山河合博士旌功碑」(1933년 건비)가 현존한다.

로 쓴 「文学博士河合弘民小傳」을 제공 받아 도록과 함께 소개한 바 있다. 이 「小傳」은 가와이 히로타미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에 본 논문의 주제를 서술하기에 앞서 그 원문과 번역 및 간단한 주석을 아래에 첨부하여 관심 있는 국내 독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2)]

나는 뛰어난 재능을 품고 장차 크게 성공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도중에 병을 얻어 그 업적을 반도 이루지 못하고 홀연히 세상을 떠난 히로타미의 불행을 깊이 슬퍼한다. 히로타미는 내 셋째 동생[형제 중 세 번째라는 뜻]으로 메이지 5년(1872) 11월 나고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겐조, 어머니는 유키코, 형은 고지로, 동생은 히데히코이고 여동생 데루코는 어릴 때 죽었다.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하여 겨우 고지로의 학비를 낼 돈밖에 없어 나는 愛育社에서 돈을 빌렸다.

두 사람[시타로와 고지로]은 함께 도쿄에 공부하러 갔으나 병으로 누워 있는 일이 많았고 여동생도 병으로 죽었다. 히로타미는 그 와중에 온갖 고생을 다 했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하루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하루는 학교에 나가 공부하였는데 그 고생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애육사[3)]에서 학비를 빌린 덕택이었다. 그 후 도쿄에 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에 입학하여 사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이 매우 진보하였다. 대학원 졸업 후에 취직했는데 바쁜 업무 중에도 조금도 개을리하지 않고 영어, 독어, 불어를 배워 장차 연구자가 되기 위한 바탕을 서서히 다듬었다.

메이지 30년(1897) 故 가쓰라(桂公爵)[4)] 공작에게 인정받아 대만협회학교의 일을 맡게 되었고, 그 후 야마가타와 시즈오카에 있는 두 중학교의 교장직을 역임했다. 메이지 39년(1906) 동양협회전문학교(東洋協會專門學校)[5)] 경성(서울) 분교의 주임이 되어 가족을 도쿄에 남기고 경성에 단신으로 부임하였다. 처음 이조의 역사를

2) 이 「小傳」은 다이쇼 7년(1918) 10월 『東洋時報』에 게재되었다. 가와이 히로타미의 서거는 이 해 10월 12일이므로 서거 후 곧 집필된 것이다. 『東洋時報』 제241호, 東洋協会, 1918.

3) 愛育社는 1875년 오노 다다시로(大野唯四郎, 1839-1883)가 고아 구제를 목적으로 오사카에서 설립한 자선단체이다. 빈곤 가정의 자제를 위한 학비 대여 사업도 하고 있었다. 현재 오사카부(大阪府) 사카이시(堺市)에서 아동양호시설 구제고도모엔(久世こども園, 구세 어린이원)을 운영하고 있다.

4) 가쓰라 타로(桂太郎, 1848-1913)는 조슈(長州) 출신의 군인 정치가이다. 육군대장, 제2대 대만총독을 거쳐 후에 총리대신을 역임했다. 총리 재임 시인 1905년에 미국 특사 윌리엄 태프트(William Taft)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화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승인한 가쓰라 태프트 비밀 협약을 맺었다. 가와이 형제와의 구체적인 관계는 알 수 없다.

5) 1900년 가쓰라 타로(桂太郎)가 설립한 臺湾協會學校가 1907년에 東洋協會專門學校로 개칭되었고, 경성분교도 이때 개설됐다. 현재 도쿄에 있는 타쿠쇼쿠(拓殖) 대학의 전신이다.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뻐하면서 그 문물제도를 전력으로 연구하여 당국이 조선을 경영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인이 된 공작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했다. 이에 발분 노력하여 우선 조선어를 배워 대강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서, 고문서, 흩어진 편지 등 연구에 참고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수집했고, 틈이 나면 유적을 답사하고 옛일을 잘 아는 노인을 찾아 조선 팔도를 두루 돌아다녔다. 히로타미가 수집한 책은 집안에 넘칠 정도이었으며, 그는 책 사이에 앉아 촌음을 아껴가며 계속 노력하였으니, 그 부지런함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8년간 연구하면서 선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커다란 사실을 밝혀냈으며, 친구들은 그 성과를 세상에 공표하도록 권했다.

그러나 히로타미는 대기만성하려는 의도에서 구차한 설을 발표하고자 하지 않고 더욱 연구에 힘썼다. 히로타미의 뜻을 따르자면 연구의 완성까지는 아직 10년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중에 병이 들자 친구들은 불치의 병인 것을 알고 연구의 일부만이라도 완성 시켜 대학에 제출하여 학위를 얻도록 백방으로 권했다. 나도 난치의 병임을 알고 간곡히 권했는데, 그가 인생의 한 점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히로타미는 그 뜻에 따라 「李朝稅制論」을 교토제국대학에 제출했고, 당국은 심사 후 그 연구의 공을 인정하여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그 때가 다이쇼 5년(1916) 8월이었다. 그 후 동양협회는 히로타미를 도쿄에 전근시켜 요양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병은 더욱 악화 되어 다이쇼 7년 10월 12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향년 47세였다. 아아, 히로타미는 생전에 온 힘을 독서에 쏟아 연구하면서 수시로 기록했으니 그 미완성의 초고가 서재에 가득하다.

히로타미가 처음에 병을 얻었을 때 친구인 의학박사 사토 쓰네마루 군이 매우 걱정하여 치료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히로타미도 그 말을 잘 들어 요양에 힘썼으나 끝내 효력이 없었다. 아아, 히로타미 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히로타미 처럼 진지한 사람에게 하늘은 기어코 수명을 주지 않았다. 아아, 하늘은 사람을 대우하되 오직 히로타미에게만 각박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는 것을 땅이 원치 않은 것인가? 그러나 하늘과 땅의 뜻은 사람이 엿볼 수 없는 것이다. 히로타미는 人事를 다하고 천명에 따랐다. 히로타미가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히로타미는 다나카씨와 결혼하여 4남 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도시타미, 후미오, 다케오, 다미오이며, 딸은 하나코이고, 또 딸 하나는 일찍 죽었다. 하늘은 히로타미의 생명을 일찍 빼앗았으나 후사를 주는 데는 아낌이 없었다. 그렇다면 하늘의 뜻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아버지가 미처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루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들들은 그 뜻을 받들어 발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려서 히로타미와 같이 고생했으니 늙어서는 즐거움을 같이 하기를 원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히로타미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나는 다행히 건강하나 히로타미는 먼저 저승에 가 유명을 달리하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인사의 변이 홀연

히 일어나고 천명을 예측할 수 없음을 추회하여 히로타미의 소전을 쓰니 붓을 놓고 한참이나 참담한 마음이었다.[6]

2. 가와이문고의 고문서

1) 1777-1846년 漢城府 中部 貞善坊 大廟洞의 민가 매매문서

가와이문고에는 정조 1년(1777)부터 헌종 12년(1846)에 이르는 70년간의 정선방 대묘동(현재 종로 3가 북쪽 지역)의 주택 매매문서 11장이 있다(정리번호 KY_X_0235_002-012). 이하에 이 문서를 한 장씩 소개한 후에 거기에 보이는 문제점을 짚어 보겠다.

①「1777年(乾隆 42, 正祖 1) 鄭主簿宅奴軟金家屋垈地賣買明文」(KY_X_0235_012) (원문)

---

6) 河合鈰太郎,「文学博士河合弘民小傳」,『東洋時報』第241號, 東洋協会, 1918. "抱有為之才, 而有欲大成之志, 而中道得病, 其業之就, 未半而忽去世, 予深悲弘民之不幸也. 弘民予三弟也. 以明治五年十一月, 生於名古屋. 父曰堅造, 母曰雪子, 有兄曰鉉次郎, 有弟曰錝彦, 一妹照子夭. 我家甚貧, 貨財僅足支鉉次郎之學資, 予乃借資於愛育社. 二人同出學於東都, 而每多在病蓐, 妹亦得病而歿. 弘民處其間, 備嘗辛酸. 其學於中學, 一日則在家, 助母採薪水之勞, 一日則出校從學, 其勞苦殆不可名狀. 而能卒中學之業, 乃借愛育社之資. 出東都, 卒高等學校之業, 更進入東京帝國大學文科大學, 修史學業. 畢入大學院, 學大進, 乃出而就職. 執務繁忙之間, 未曾少懈, 能學英獨佛語, 徐養他日研究之素. 明治三十二年, 辱故桂公爵之知遇, 掌臺湾協會學校之事, 後歷任山形, 静岡両中學校長. 同三十九年, 為東洋協會專門學校京城分校主任, 殘 家族於東京, 單身赴任京城. 始得修李朝歷史之機, 大喜, 專心欲研究其文物制度, 資當局朝鮮之經綸, 聊有酬故公爵之恩. 發憤努力, 先修朝鮮語, 頗得解之. 又有古書古文零翰尺牘, 苞資研究者, 不惜千金集之. 有間則探舊跡, 託古老, 周遊遍于八道. 其所蒐集之書, 汗牛充棟. 弘民日夜兀坐其間, 努力惜寸陰, 孜々不怠, 人莫不感其精勵者. 研鑽八年, 大闢前人未發之事. 友人勸弘民, 以公其說於世. 而弘民之志, 在大器之晚成, 不欲出區々之說, 攻究益進. 然從弘民之志, 完成之, 尚要十年矣. 而中途病起, 友人知其病在膏肓, 百方勸完成其研究之一部, 提出之於大學, 而求學位. 予亦知其病之難治, 懇勸之, 其意在欲遺鴻爪之一點於世而已. 弘民從之, 提出李朝稅制論於京都帝國大學. 當局審查, 認其研究之功, 授以文學博士之位, 時大正五年八月也. 後東洋協會殊轉任弘民於東都, 以與静養之時. 而病益進, 大正七年十月十二日溘焉而逝矣, 享年四十有七. 嗚呼, 弘民之在世, 盡其全力於讀書, 考究之間, 隨記隨錄, 其草稿未成編者滿書齋. 弘民之始得病, 親友醫學博士佐藤恒丸君, 深憂之, 懇授治療之法, 弘民亦能從之, 加養甚至, 而醫療竟無其効. 噫, 篤學如弘民, 真摯如弘民, 而天終不藉年矣. 嗚呼, 天之遇人殊薄於弘民耶. 抑亦地不欲濟人之美耶. 然天心地意, 非人之能所窺知也. 弘民既盡人事, 而從天命, 弘民亦何怨乎. 弘民娶田中氏, 有四男二女, 曰俊民, 文雄, 武雄, 民雄, 曰花子, 一女夭. 天早奪弘民之生, 而不吝授後嗣, 如此則天之意在欲使其子繼父之志, 能大成其未就之業歟. 則為子者能體意發憤. 而予幼既與弘民共其勞苦, 老亦欲同其歡樂, 予有今日所負於弘民者甚多矣. 而予幸頑健, 弘民先歸於九泉, 幽明相隔, 呼而不答, 追懷人事之變忽起, 而天命之不可預測, 作弘民小傳, 投筆慘然久之."

乾隆四十二年丁酉十月初二日, 鄭主簿宅奴軟金前明文.
右明文事段, 慶生員宅奴水鐵處買得,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拾肆間, 草家參間, 空垈參拾間庫乙, 右人前, 價折錢文貳百柒拾伍兩, 依數交易, 捧上納宅爲遣, 本文記拾柒度, 牌子壹丈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上典宅子孫族屬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事.
財主 方主簿宅奴德奉 (左寸)
證 李千金 (手決)
筆 金福同 (手決)

(석문)
乾隆四十二年丁酉十月初二日, 鄭主簿宅奴軟金 앞 明文.
右明文事단, 慶生員宅奴水鐵處買得, 中部貞善坊大廟洞契복재[7], 瓦家拾肆間, 草家參間, 空垈參拾間곳을, 右人앞, 價折錢文貳百柒拾伍兩, 依數交易, 捧上納宅ᄒᆞ고, 本文記拾柒度, 牌子壹丈아오로, 永永放賣ᄒᆞ거온, 日後아ᄒᆡ, 上典宅子孫族屬中, 如有雜談이거등, 持此文, 告官卞[辯의 약자]正事.

(번역)
건륭 42년 정유(1777) 10월 초이틀에 정주부 댁의 노비인 연금 앞의 [주는] 명문[매매문서].
오른쪽 명문의 일은 경생원 댁의 노비인 수철에게서 매입한 중부 정선방 대묘동계에 있는 기와집 14칸과 초가집 3칸, 빈터 30칸을 右人(연금) 앞에 동전으로 환산하여 275량의 값에 [넓이 등의] 수자 그대로 교역하여 [가옥과 토지를] 넘기고 [대가를] 주인댁에 납입하되 本文記[이 이전의 매매문서] 17장과 牌子[주인이 노비에게 매각을 위임한 문서] 1장도 아울러, 영원히 매도하니 후일에 상전[주인] 댁 자손이나 친척 중에 만일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것.
재주[소유자] 방주부 댁의 노비 덕봉 좌촌[8]
증인 이천금 수결[화압]
필집[집필자] 김복동 수결

이 문서는 1777년 10월 2일, 정주부 댁의 노비 연금이 방주부 댁의 노비 덕봉으로부터 漢城府 中部 貞善坊 大廟洞(현재 종로 3가 북쪽)에 위치하는 기

7) "伏在"는 "에 있는"이라는 뜻이겠으나 어떻게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8) 왼손 중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그리는 노비의 사인.

와집 14칸, 초가집 3칸과 대지 30칸(본래는 慶生員宅 노비 水鐵에게 구입한 것)을 동전 275량으로 구입하여 받은 명문이다. 노비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각기 주인의 명에 의하여 노비가 대신 거래한 것이다.

이하 모두 비슷한 문서 형식이어서 원문만을 게재한다.

②「1781年(乾隆 46, 正祖 5) 金履恭家屋垈地賣買明文」(KY_X_0235_011)
乾隆四十六年辛丑七月二十日、金履恭前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拾肆間, 草家參間, 空垈貳拾玖間庫乙, 價折錢文參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貳拾肆度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如有雜談則[9], 持此文, 告官卞正事.
自筆財主 鄭 瑜 (手決)
證人 金宗淳 (手決)

1781년(乾隆 46, 正祖 5) 7월 20일에 金履恭이 鄭瑜로부터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14칸, 초가집 3칸과 대지 29칸을 구입하여 받은 明文이다. 가격은 동전 300량이다. 다른 明文에서 대지는 모두 30칸인데, 이 문서만이 29칸으로 되어 있다. 自筆財主인 鄭瑜는 곧 위 명문의 鄭主簿라 생각된다.

③「1783年(乾隆 48, 正祖 7) 邊致翰家屋垈地賣買明文」(KY_X_0235_010)
乾隆四十八年癸卯三月二十七日, 邊致翰前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鄭瑜許買得居生是如可,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拾肆間, 草家參間, 空垈參拾間庫乙, 右人前價折錢文貳百柒拾伍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本文記拾玖度, 牌子參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族屬中, 如有雜談則, 持此文, 告官卞正事.
財主 金履恭 (手決)
證
筆 鄭 瑜 (手決)

1783년(乾隆 48, 正祖 7) 3월27일에 邊致翰(아래 明文에 보이는 邊戊申의 父親) 이 金履恭으로부터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14칸, 초가집 3칸과 대지 30칸

9) 이 "則" 자는 한문에서는 아래에 붙여 읽으나 한국식으로 위에 붙여 읽는 것으로 생각한다.

(鄭瑜에서 구입하여 居住)을 구입하고 받은 明文이다. 가격은 동전 275량. 이 明文을 쓴 筆執은 鄭瑜, 즉 이전의 소유자이다.

④「1798年(嘉慶 3, 正祖 22) 元敬身家屋垈地賣買明文」(KY_X_0235_009)
嘉慶三年戊午六月十六日, 元敬身前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家親生時, 金履恭處買得居生是如可,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拾肆間半, 草家參間庫乙, 右人前價折錢文伍佰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貳拾度, 牌子參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同生子孫族屬中, 如有雜談則,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財主 童蒙 邊戊申 (左手形)
證 趙福潤 (手決) 李世興 (手決) 張載德 (手決)
筆執 孫敬直 (手決)

1798년(嘉慶 3, 正祖 22) 6월 16일에 元敬身이 童蒙인 邊戊申으로부터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14칸 반, 초가집 3칸과 대지 30칸(父親인 邊致翰이 生前에 金履恭에서 구입하여 居住)을 구입하고 받은 明文이다. 가격은 동전 500량. 기와집은 이 이전 문서에서는 14칸이었으나 이 문서에서는 14칸 반으로 되어있으니 이 사이에 반 칸을 증축하였을 것이다.

⑤「1800年(嘉慶 5, 正祖 24) 元敬身賣却家屋垈地明文」(KY_X_0235_008)
嘉慶五年庚申四月初八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拾肆間半, 草家參間, 空垈參拾間庫乙, 邊戊申處買得居生是如可, 右人前, 價折錢文陸百貳拾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本文記貳拾壹度, 牌子參張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如有雜談則, 持此文記卞正事.
財主 元敬身 (手決)
證 趙福潤 (手決)
筆 孫敬直 (手決)

1800년(嘉慶 5, 正祖 24) 4월 8일에 元敬身이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14칸 반, 초가집 3칸과 대지 30칸(邊戊申에서 구입하여 居住)을 동전 620량에 매각하여 買主에게 준 明文이다. 買主는 기재가 없으나 다음 문서에 보이

는 崔敬老이다.

⑥「1816年 (嘉慶 21, 純祖 16) 崔敬老賣却家屋垈地明文」(KY_X_0235_007)
嘉慶二十一年丙子六月 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拾捌間半, 空垈參拾間庫乙, 元敬身處買得居生如可, 右人前, 價折錢文陸佰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本文記貳拾貳度, 牌子參丈並以, 永永放賣爲乎矣, 日後良中, 若有雜談則,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財主 崔敬老 (手決)
證人 再從兄 敬秀 (手決)
筆 崔衡在 (手決)

1816년(嘉慶 21, 純祖 16) 6월 모일에 崔敬老가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18칸 반, 대지 30칸(元敬身에서 구입하여 居住)을 동전 600량에 매각하여 買主에게 준 明文이다. 買主는 기재가 없으나 다음 明文의 李儀九이다. 崔敬老는 1800년에 元敬身에게서 기와집 14칸 반, 초가집 3칸과 대지 30칸을 구입했음으로 초가집 3칸을 기와집 4칸으로 늘려 개축한 것으로 짐작된다.

⑦「1821年 (道光 1, 純祖 21) 李儀九賣却家屋垈地明文」(KY_X_0235_006)
道光元年辛巳五月初六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中部貞善坊大廟洞伏在, 瓦家拾捌間半, 空垈參拾間庫乙, 崔敬老處買得居生是如可, 右人前, 價折錢文柒佰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貳拾參度, 牌子參丈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雜談則, 此文記卞正事.
財主 李儀九 (手決)
證 洪善養 (手決)
筆 吳世彦 (手決)

1821년(道光 1, 純祖 21) 5월 6일에 李儀九가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18칸 반과 대지 30칸(崔敬老에서 구입하여 居住)을 동전 700량에 매각하여 買主에게 준 明文이다. 買主는 기재가 없으나 다음 明文에 보이는 鄭景洙이다.

⑧「1834年 (道光 14, 純祖 34) 鄭景洙賣却家屋垈地明文」(KY_X_0235_005)
道光十四年甲午十月 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拾捌間半, 空垈參拾間庫乙, 李儀九處買得居生是如可, 右人前, 價折錢文柒佰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本文記貳拾肆度, 牌子參張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則, 此文記憑考事.
財主 鄭景洙 (印)
證 吳遂明 (手決)
筆 劉明祐 (手決)

1834년(道光 14, 純祖 34) 10월 모일에 鄭景洙가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18칸 반과 대지 30칸(李儀九에서 구입하여 居住)을 동전 700량에 매각하고 買主에게 준 明文이다. 買主는 기재가 없으나 다음 明文에 보이는 李儀朝이다.

⑨「1835年(道光 15, 憲宗 1) 李儀朝賣却家屋垈地明文」(KY_X_0235_004)
道光十五年乙未閏六月 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拾捌間半, 空垈參拾間庫乙, 鄭景洙處買得居生是如可, 右人前, 價折錢文柒佰伍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貳拾伍度, 立旨參張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則, 以此憑考事.
財主 李儀朝 (手決)
訂 方振冀 (手決)
筆 金之彦 (手決)

1835년(道光 15, 憲宗 1) 윤6월 모일에 李儀朝가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18칸 반과 대지 30칸(鄭景洙에게 구입하여 居住)을 동전 750량에 매각하여 買主에게 준 명문이다. 買主는 기재가 없으나 다음 明文에 보이는 李經修이다.

⑩「1845年(道光 25, 憲宗 11) 李經修賣却家屋垈地明文」(KY_X_0235_003)
道光二十五年乙巳三月初十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拾捌間半, 空垈參拾間庫乙, 李儀朝處買得居生是如可, 右人前, 價折錢文柒佰伍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貳拾陸度, 立旨參張並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則, 以此憑考事.
財主 李經修 (手決)
證 王學說 (手決)
筆執 李景祿 (手決)

1845년(道光 25, 憲宗 11) 3월 10일에 李經修가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18칸 반과 대지 30칸(李儀朝에게 구입하여 居住)을 동전 750량에 매각하여 買主에게 준 明文이다. 買主는 기재가 없으나 다음 明文에 보이는 禹治洪이다. 李經修는 다음 明文에서는 李景修로 되어있으나 같은 인물일 것이다.

⑪「1846年(道光 26, 憲宗 12) 禹治洪賣却家屋明文」(KY_X_0235_002)
道光二十六年丙午九月 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中部貞善坊大廟洞契伏在, 瓦家二十一間庫乙, 李景修處賣得居生是白加, 右人前, 價折錢壹千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二十六度, 立旨二張幷以, 永永放賣爲乎矣,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則, 此文記憑考事.
財主 禹治洪 (手決)

1846년(道光 26, 憲宗 12) 9월 모일에 禹治洪이 貞善坊 大廟洞契의 기와집 21칸(李景修에서 구입하여 居住)을 동전 1000량에 매각하고 買主에 준 明文이다. 買主는 기재가 없고 증인 등도 기재되지 않았다. 禹治洪은 전년인 1845년에 李景(經)修로부터 기와집 18칸 반과 대지 30칸을 구입하였으므로 기와집 2칸 반을 증축한 셈이다.「空垈參拾間」에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가옥만 매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11장의 문서 내용을 일람표로 하면 다음과 같다.

年代	賣却者와 買入者	賣買內容	價格
?	慶生員宅奴水鐵→方主簿宅	-	-
1777	方主簿宅奴德奉→鄭主簿宅奴軟金	瓦家14間, 草家3間, 垈地30間	275兩
1781	鄭瑜(鄭主簿)→金履恭	瓦家14間, 草家3間, 垈地29間	300兩
1783	金履恭→邊致翰(邊戊申의 父親)	瓦家14間, 草家3間, 垈地30間	275兩
1798	童蒙邊戊申→元敬身	瓦家14間半, 草家3間, 垈地30間	500兩
1800	元敬身→崔敬老	瓦家14間半, 草家3間, 垈地30間	620兩
1816	崔敬老→李儀九	瓦家18間半, 垈地30間	600兩
1821	李儀九→鄭景洙	瓦家18間半, 垈地30間	700兩
1834	鄭景洙→李儀朝	瓦家18間半, 垈地30間	700兩
1835	李儀朝→李經修	瓦家18間半, 垈地30間	750兩
1845	李經(景)修→禹治洪	瓦家18間半, 垈地30間	750兩
1846	禹治洪→?	瓦家21間	1000兩

〈표〉 1777-1846년 漢城府 中部 貞善坊 大廟洞의 민가 매매문서 일람.

위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777년에서 1846년에 이르는 70년간, 가격은 275량에서 1000량으로 약 3.5배로 올랐다. 특히 1783년(정조 7)에서 1798년(정조 22) 사이, 1845년(헌종 11)에서 1846년(헌종 12) 사이의 상승률이 높다. 반대로 1783년과 1816년에는 가격이 하락했다. 1816년에는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증개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내렸다.

㉯ 70년간 소유자는 12명으로 평균 소유 햇수는 약 6년이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빈번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李儀朝(1834-35년 소유), 禹治洪(1845-46년 소유)은 구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매각하였으며, 李儀朝는 50량, 禹治洪은 250량의 이익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 1800년에서 1816년 사이에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개축되었다.

㉱ 1781년 이후 노비가 대신하는 거래가 없어진다. 鄭瑜(鄭主簿)는 1777년에 사들일 때에는 노비 軟金을 대리로 세웠으나 1781년에 매각할 때에는 자기 이름을 쓰고 명문도 자필로 작성했다. 1783년에도 집필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鄭瑜가 노비를 소유하지 못 하는 신분으로 전락한 가능성도 있으나 대국적으로 본다면 18세기 후반 이후 노비제도가 붕괴하여 노비가 격감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비에게 매매 행위를 대행시키는 것은 양반층이 자기가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기피한 탓이라 생각되나 이 시기에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점점 사라진 것이다.

㉲ 1800년 이후 買主의 이름('前' 자의 앞)이 기재되지 않게 된다. 이는 주택 매매문서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貢人權 매매문서 등에도 널리 보이는 현상이다.

2) 漢城府 東部 昌善坊 於義洞의 土地와 水芹畓

다음에는 창선방 어의동(현재 종로 5가 북쪽 지역)의 토지와 미나리 논(水芹田)의 明文 및 관련 문서를 소개한다.

「1733年(雍正 11, 英祖 9) 金書房宅奴有淸空垈, 水芹畓賣買明文」(KY_X_0234_001)

(원문)

雍正十一年癸丑六月初十日, 金書房宅奴有淸前明文.

右明文事段, 當此大無之年許多所率, 計活無路旀不喩, 移買次以, 東部昌善坊於義洞伏空垈參百柒間, 及水芹畓伍升落只等庫乙, 同人處, 價折錢文貳百陸拾伍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本文記玖度, 立旨壹張並以, 上典主牌字導良,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上典子孫同生族屬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卞正事.

財主 申生員宅奴 業先 (左寸)

證人 金鼎熙 (手決) 李泰成

筆執 尹命大 (手決)

(석문)

雍正十一年癸丑六月初十日, 金書房宅奴有淸앞 明文.

右明文事단, 當此大無之年, 許多所率, 計活無路뿐아닌디, 移買次로, 東部昌善坊於義洞복 空垈參百柒間, 及水芹畓伍升落只等곳을 同人處, 價折錢文貳百陸拾伍兩, 依數交易, 捧上ᄒᆞ고, 本文記玖度, 立旨壹張아오로, 上典主牌字드ᄃᆡ여, 永永放賣ᄒᆞ거온, 日後아ᄒᆡ, 上典子孫同生族屬中, 如有雜談이거등, 將此文記, 告官卞正事.

(번역)

옹정 11년 계축 6월 초10일에 김서방댁의 노비 우정 앞의 명문.

右 명문의 일은 이 심한 흉작의 해를 당하여 많은 식구가 있어 생계의 길이 없을 뿐만 아니니(?) [다른 전답을] 구매하려고 東部 昌善坊 於義洞에 있는 빈터 307칸과 미나리 논 5되지기 등을 동인[우정] 처에 동전으로 환산하여 265량의 값으로 [앞에 기재된] 숫자대로 교역하여 넘기되 본 문기[이 이전의 매매문서] 9장, 입지[관청이 발급하는 증명서] 1장도 아울러 상전주[주인]의 패자[명령서]에 따라 영원히 매각하니 후일에 상전의 자손이나 형제 친척 중에 만일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올바르게 처리할 것.

재주[소유자] 신생원댁 노비 업선 좌촌

증인 김정희 수결 이태성

필집[집필자] 윤명대 수결

1733년(雍正 11, 英祖 9) 6월 10일에 金書房宅의 노비 有淸이 申生員의 노비 業先으로부터 東部 昌善坊 於義洞(종로 5가 북쪽)의 토지 307칸과 미나리 논 5되지기(약 100평)를 구입하여 받은 明文이다. 가격은 동전 265량이다.

①「1733年(雍正 11, 英祖 9) 申生員宅差奴業先牌旨」(KY_X_0234_002)
差奴業先處付. 無他. 當此大無之年, 許多所率, 計活無路岔不喩, 外方田畓移買次以, 京中於義洞伏家垈參百柒間, 及水芹畓伍升落只, 東趙生員家, 西渠, 南路, 北金參奉田庫乙, 今欲放賣. 汝亦知悉此意, 願買人處, 準價捧上, 納宅後, 如此牌子導良, 成文以給, 宜當向事.
上典 申 (手決) 癸丑六月初二日

1733년(雍正 11, 英祖 9) 6월2일에 申生員宅 노비 業先이 상전인 申生員으로부터 於義洞의 집터 307칸과 미나리 논 5되지기의 매각을 위임받은 牌旨이다. 미나리 논의 북쪽에는 金參奉의 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財主申生員奴業先招辭」(KY_X_0234_003)
癸丑七月二十五日, 財主申生員奴業先白等, 東部昌善坊於義洞伏空垈參百柒間, 及水芹畓伍升落只等庫乙, 價折錢文貳百拾伍兩, 捧上爲遣, 狀者金書方宅奴有淸亦中, 永永放賣, 的實相考, 施行敎事.
堂上 (手決) 郎廳 (手決) 白 (左寸)

1733년(雍正 11, 英祖 9) 7월 25일 申生員宅 노비 業先이 ①의 明文 매매에 관해서 그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漢城府에 신고한 招辭(신고서)이다.

③「1733年 證人金鼎熙､李泰成, 筆執尹命大招辭」(KY_X_0234_004)
同日, 訂[證의 약자]金鼎熙, 李泰成, 筆尹命大白等, 財主亦, 東部昌善坊於義洞伏空垈參百柒間, 及水芹畓伍升落只等庫乙, 價折錢文貳百拾伍兩, 捧上爲遣, 狀者金書房奴有淸, 永永放賣. 文記成置時, 矣徒等以, 訂[證]筆隨參, 着名的實. 相考施行敎事.
白 (手決) 白 (手決) 白 (手決) 堂上 (手決) 郎廳 (手決)

1733년(雍正 11, 英祖 9) 7월 25일 ①의 明文 증인인 金鼎熙, 李泰成과 筆執의 尹命大가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漢城府에 신고한 招辭(신고서)이다.

④「1733年 金書房宅奴有淸及水芹畓賣買斜給立案」(KY_X_0234_005)
雍正十一年七月二十五日, 漢城府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粘連所志, 買得文記, 及財主 訂[證]筆各人等招辭是乎等乙用良, 本

文記取納相考幷以, 狀者金書房宅奴有淸亦中, 斜給爲遣, 合行立案者.
判尹 左尹 右尹 (手決) 庶尹 判官 主簿 參軍 (手決)

1733년(雍正 11, 英祖 9) 7월 25일 ①의 明文 매매에 대해서 漢城府가 金書房宅 노비 有淸에게 발급한 立案(증명서)이다.

이상 일련의 문서에서는 1733년 당시 현재 종로 5가 북쪽 구역인 昌善坊 於義洞에 택지와 더불어 미나리 논이 5되지기(약 100평)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나리 논(水芹畓(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우선 고려 말기에 편찬된 중국어 교과서인 『朴通事』에 아래 문장이 보인다.

미나리 논도 잘 가꾸어라.[10]
이 집은 미나리 논이 가까우니 개구리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11]

『朴通事』의 무대는 보통 원나라의 수도 大都(지금의 北京)로 여겨지나 大都에 미나리 논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또 그런 사료도 없기 때문에 이는 고려 국내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시대 王京(개경)에 미나리를 가꾸는 논이 있었음은 다음 자료로 알 수가 있다.

惟茂의 모친 李氏는 질투심이 강하고 험악한 성질이어서 항명한 자를 살육한 것은 거의 그녀가 시킨 짓이었다. [林衍이] 패함에 盛裝하고 보물을 품고 도망하려 했으나 趙璥의 妻子가 문에 이르러 엿보고 머리카락을 쥐고 뺨을 때렸다. 또 고을에서 그에게 원한이 있는 자는 다투어 그 옷을 찢었다. 구경하는 사람이 많아 숨을 수가 없어 미나리 논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다투어 기와와 돌을 던졌다.[12]

이 기사는 고려 후기의 무신 林衍(?-1270)이 죽은 후에 개성에 있던 그의

10) 「水芹田也修理的好着」 58話, 『老乞大朴通事諺解』, 亞細亞文化社, 1973, 205면.
11) 「這房子水芹田近, 水蛙叫的聒譟.」 74話, 『老乞大朴通事諺解』, 亞細亞文化社, 1973, 248면.
12) 「林衍傳附惟茂」, 『高麗史』 卷130 叛逆四; 『高麗史』 下, 亞細亞文化社, 1990, 827-828면. "惟茂母李氏性妬險, 凡拒命殺戮多其教也. 及敗, 盛服懷珍寶欲逃. 趙璥妻子至門伺之, 捽髮批頰. 又里有宿怨者爭聚裂脫其衣, 觀者如堵. 不得匿, 遂入芹田. 兒童爭以瓦礫擲之."

집 부근에서 벌어진 사건의 기록이니, 당시 개성 안에 미나리 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려 말기 吉再의 시 「泮宮偶吟」[13]에 "水芹田畔有垂楊[미나리 논 곁에 수양버들]"이란 句가 있다. 泮宮은 본래 제후의 학교를 뜻하며 여기서는 成均館을 말한다. 조선시대 성균관에도 미나리 논이 있었던 것은 『朝鮮王朝實錄』의 다음 기사로 알 수 있다.

> 석강에 임어했을 때 특진관 심연원이 아뢰기를 "성균관 유생의 식사 공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에 옛 관아 터를 미나리 논으로 만들었으나, 그 땅은 본래 모래와 돌로 되어 있어 泮水를 끌어다가 물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수에 해마다 구멍이 생겨 물을 대지 못하고, 또 해마다 가물기 때문에 메말라 물기가 없어 미나리를 심지 못하여 황지가 되었습니다. 본래 채솟값은 橫看[관청 예산의 월별 지출명세서]에 의하면 4월 이후에는 주지 않게 되어 있고, 學田에서 나는 것도 많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노비에게 장만하여 바치게 하였으나, 노비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훈련원의 미나리 논은 70畝나 되는데 훈련원은 늘 무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며, 육조와 다른 관아들도 어찌 모두 미나리 논이 있어야 관원들의 반찬 공급을 하겠습니까? 이 [훈련원의] 미나리 논을 반 나누어 주거나 옛 관아 터의 밭과 서로 바꾸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시기를 "유생들의 식사 공급이 중요하니 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14]

위에서 성균관의 미나리 논은 유생들의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또한 성균관 이외에도 훈련원이나 육조의 다른 관아에도 역시 관원들의 식사를 위한 미나리 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성균관에 미나리 논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 『詩經』「魯頌・泮水」에 "반수를 즐겨 그 미나리를 딴다[思樂泮水, 薄采其芹.]"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泮水는 제후의 학교인 泮宮에 있는 연못으로 성균관에 泮水가

---

13) 「先生遺詩」, 『冶隱先生言行拾遺』 卷上, 韓國文集叢刊 7, 392면.

14) 『朝鮮王朝實錄』 卷98 中宗 37년 4월 5일. "御夕講, 特進官沈連源曰: '成均館儒生供饋, 事多艱難. 前者以古館基爲水芹田, 其地本以沙石之處, 引灌泮水. 而今則泮水年年成窟, 不能灌溉. 又因逐年旱乾, 高燥不潤, 芹不得栽, 陳爲赤地矣. 本來菜價於橫看, 四月以後不給. 學田所出不多, 不得已令奴子備供, 奴子難於支供. 訓鍊院水芹田多至七十畝. 訓鍊院非常養武士之地. 六曹及他司, 豈盡有水芹田, 後爲官員支供也? 此水芹田或分半給之, 或以館古基之田相換用之何如?' 上曰: '儒生供饋爲重, 如啓爲當.'" 비슷한 내용은 동년 4月 11日에도 보인다.

있는 것,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采芹이라 하는 것도 모두 『詩經』에 근거가 있다. 다만 중국에는 성균관에 해당하는 國子監 등의 학교에 미나리 논이 있다거나 미나리를 심었다는 기록은 없다. 성균관에 미나리 논을 두는 것은 중국에는 없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독특한 제도이다. 다만 이것은 『詩經』을 근거로 하여 미나리 논을 두었다기 보다는 본래 미나리를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근거를 『詩經』에서 찾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한시문에는 미나리를 먹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 별로 없는 것에 비해 조선 문인의 한시문에는 그 예가 많다. 『韓國文集叢刊』에서 "芹菜"를 검색해 보면 27건의 예를 얻을 수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 외실(外室)에서 글을 읽는데, 끼니때가 지났는데도 선생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학도들도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다. 이윽고 안에서 소반에다 미나리나물을 놓고 거기에 염장(塩醬)을 갖추어 차려 내오자, 선생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고 남김없이 다 들었다.15)

> 꿈에 시가 이루어져 마치 신이 들은 것 같고, 밥을 배불리 먹으니 미나리 맛을 저절로 알겠다.16)

> 미나리 파란색 조리하면 유황색이 되고, 새로 담근 술은 누룩이 모자라나 술잔에 넘친다.17)

이상의 예를 보면 미나리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즐겨 먹는 상비채였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의 시는 파란 미나리가 유황색이 됐다 하니 미나리의 김치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詩經』「小雅・采菽」의 "나는 미나리를 딴다[言采其芹]"의 鄭箋에는 "言은 나요, 芹은 채소로 김치를 담글 수 있다. 역시 군자를 대접하는 데에 사용한다[言我也. 芹菜也, 可以爲菹, 亦所用待君子也.]"라고 되어 있어 사대부가 먹기에 알맞은 채소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에서는 고대

15) 宋時烈, 「記述雜錄」, 『宋子大全』 附錄 卷19. "嘗讀書於其外, 食時已晩, 而不入內, 學徒不敢退. 俄有芹菜盤釘鹽醬而進, 先生略不何問而進食至盡."
16) 任相元, 「溪頭」, 『恬軒集』 卷21. "夢得詩成似有神, 飯飽自知芹菜美."
17) 丁若庸, 「春日澹齋雜詩」,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 卷1. "芹菜青調作乳黃, 新篘少麴湛盈觴."

라면 몰라도 적어도 근세에는 흔히 먹는 채소는 아니었다.

서울 한복판인 종로에 왜 미나리 논이 100평이나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이 밖에도『新增東國輿地勝覽』卷3「漢城府・西部盤松坊」에 "水芹田契"가 보이니 미나리 논은 성균관이나 관청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서울 곳곳에서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시대 서울의 자연환경이나 도시경관을 생각할 때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3. 맺음말

가와이문고에는 약 3,200점의 낱장본 조선시대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그 특징의 하나는 조선 후기 서울의 상인층, 서민층에 관한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필자가 조사한 종로 부근 주택에 관한 2종류의 문서군을 소개하였다. 다만 이는 시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 더욱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